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유가 급락에도 웃지 못한 증시

- 주요 지수 상승: S&P500 +0.02%, 다우 +0.51% vs. 나스닥 -0.18%
- 유가 급락, 브렌트유 8.7%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 중국의 DUV 노광장비 자체 생산 소식에 반도체주 약세

Summary

미국 증시는 유가 급락과 중동 긴장 완화 소식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도 반응을 보였으나, 반도체 업종의 약세가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제한함. 다우존스지수는 0.51% 상승한 52,210.08에 마감했으며, S&P500은 0.02% 오른 7,413.64를 기록함. 반면 나스닥은 0.18% 하락한 24,932.08로 마감함.

유가·금리 하락

미국이 이란에 대한 2주간의 공습을 멈추고 외교 협상에 시간을 부여하면서 원유시장의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빠르게 축소됨. WTI와 브렌트유는 전일대비 각각 7.5%, 8.7% 하락한 배럴당 82.61달러, 88.36달러에 마감. 이는 두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

유가 하락은 채권시장에도 즉각 반영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bp 하락한 4.63%, 일본 10년물 금리는 6bp 내린 2.76%를 기록함. 그러나 주가 상승폭은 유가 하락폭에 비해 크지 않았음. 시장이 아직 이번 상황을 종전이나 최종 합의가 아닌 조건부 휴전 또는 협상 유예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공격 중단을 협상 기회로 규정하면서도, 합의가 무산될 경우 다시 강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힘.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직접 협상 여부를 둘러싼 주장도 엇갈리고 있으며, 협상의 핵심은 호르무즈해협 재개방과 핵합의 재개로 알려짐. 한편 소시에테데제네럴은 충돌이 명확한 해결책 없이 장기화될 경우, 지속 기간이 한 달 늘어날 때마다 유가에 배럴당 약 10달러의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

엔비디아 7,500억 달러 논란

엔비디아는 SK그룹과 5,000억달러 이상의 AI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OpenAI가 데이터 센터를 임차할 수 있도록 최대 2,500억달러 규모의 보증 제공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두 거래의 총규모는 7,500억달러를 상회. 이는 AI 인프라에 대한 장기 수요와 공급망 결속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 반면 Nvidia가 공급자, 투자자와 보증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순환금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구조를 단순화하면 '엔비디아의 투자·보증→AI 기업과 데이터센터의 자금조달→엔비디아 GPU와 메모리 구매→엔비디아 및 공급망 매출 증가→높아진 실적 전망을 기반으로 추가 투자로 이어지는 순환금융 거래의 특징을 갖게 됨.

이 구조는 수요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 확장을 가속화. 그러나 AI 서비스 매출과 최종 사용률이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공급자의 매출이 최종수요보다 금융지원에 의해 과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7,500억달러라는 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AI 수요의 질을 확인해야 함.

6월 핵심 자본재 주문 MoM +0.9%

미국의 6월 핵심 자본재 주문은 전월대비 0.9% 증가해 시장 예상치 0.7%를 웃돌았음. 5월 증가율도 1.9%로 상향 조정. 실제 설비투자에 보다 가까운 핵심 자본재 출하량은 1.9% 증가해 예상치 0.6%를 크게 상회함. 이 수치는 미국 기업의 투자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하게 둔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특히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력설비와 국방 관련 투자가 상반기 설비투자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함.

이는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양면적인 의미를 갖음. 긍정적인 측면은 AI·반도체 장비와 산업재 수요 유지, 기업투자에 따른 경기 하방 방어,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의 장기 수주 확대, 생산성 향상 기대 강화인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경기 둔화가 지연되며 금리인하 여력 축소, 관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투자비를 높일 가능성,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임.

즉, AI 투자는 기업이익과 경기를 지지하지만, 동시에 금리가 빠르게 낮아지는 것도 막고 있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익에는 긍정적이지만 밸류에이션에는 중립 또는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

빅테크 실적 발표: 성장보다 투자 효율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아마존의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확인하려는 것은 AI 수요 자체보다는 투자비가 얼마나 빠르게 매출과 현금흐름으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될 전망.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의 올해 합산 자본지출은 약 7,000억달러로 예상. 월가에서는 2027년 합산 투자액이 1조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 동시에 6개 대형 기술기업의 직접 부채는 약 4,600억달러에 달함.

알파벳은 사상 최대 수준의 분기 이익을 발표했음에도, 2026년 자본지출 전망을 150억달러 상향한 이후 주가가 7% 넘게 하락함. 이는 시장의 평가 기준이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가”에서 “투자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수하는가”로 바뀌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음.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설비투자(CapEx)는 전년동기대비 약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연간 CapEx 전망은 약 1,900억달러. 이 가운데 약 250억달러는 부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추정됨. 반면 Azure 성장률은 고정환율 기준 약 41%로 예상되고, M365 Copilot 유료 좌석은 1,500만개에서 2,000만개로 증가 전망.

향후 빅테크 주가는 매출 성장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큼. 잉여현금흐름, 감가상각비, 부채, 회사채 스프레드와 AI 서비스의 고객당 매출이 함께 중요해질 전망.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경고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5.2%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30년물 실질금리는 3%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 미국 기술기업의 회사채 가격도 2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뱅크오브아메리카 마이클 하트넷은 이를 “금융여건의 충격이 이익의 지지력을 넘어선 상태”로 평가. 하이퍼스케일러의 CDS 스프레드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해, 채권 투자자가 AI CapEx의 회수 가능성을 주식 투자자보다 먼저 의심하고 있다는 분석.

AI 인프라는 막대한 선행투자를 요구. 빅테크는 현금흐름이 강하지만,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와 신생 AI 기업은 회사채,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와 보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장기금리와 신용스프레드가 동시에 상승하면 'AI 투자 확대→부채와 리스 증가→이자·감가상각비 증가→잉여현금흐름 감소→신용스프레드 확대→추가 자금조달 비용 상승→CapEx 축소 압력'의 부정적 피드백 루프가 형성될 수 있음.

AI 수요가 강해도 채권시장이 자금 공급을 줄이면 투자 사이클이 둔화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AI 강세장의 가장 중요한 위험지표는 VIX보다 미국 장기 실질금리와 빅테크 회사채 스프레드에 가까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으나, 38%의 확률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반영됨.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빅테크 실적 발표와 6월 PCE 물가지수, FOMC 결과를 주시하며 관망세를 보임. (다우 +0.51%, 나스닥 -0.18%, S&P500 +0.02%, 러셀2000 +0.62%)

특징종목

뒤바뀐 시총 1위 자리

애플(+1.17%)이 시총 4조 95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엔비디아(-4.99%)의 시총 4조 7,600억 달러를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함. 엔비디아가 총 7,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새로운 AI 인프라 거래를 추진하는 데 있어 커진 시장의 우려가 주가 낙폭을 확대. 반면 애플은 안전자산(Safe Haven) 인식 확산. 경쟁사들처럼 수천억 달러를 AI 자본 지출에 쏟아붓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어적 성격의 주식의 재평가 받고 있음. 이번주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대규모 콜옵션 거래가 동반되면서, 하드웨어 밸류 체인의 불확실성을 피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빅테크로 투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

창신메모리(CXMT) 상장 효과

중국 최대 DRAM 업체 CXMT는 상장 첫날 465.82% 급등했고 시가총액은 3조2,800억위안을 기록. IPO 조달액은 약 579억위안, 당일 거래대금은 1,400억위안을 넘어 A주 역사상 처음으로 일일 거래대금 1,000억위안을 돌파함.

시장의 우려는 CXMT의 현재 실적보다 IPO 이후 증설과 기술개발 가속 가능성에 있음. 579억위안의 자금이 신규 생산능력과 DDR5, 장기적으로는 HBM 개발에 사용되면 글로벌 DRAM 공급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 소식에 메모리 관련주가 급락함. 장중 저점대비낙폭을 회복해서 끝났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 하락한 가운데 샌디스크(-11.02%), 웨스턴디지털(-4.21%), 씨게이트(-4.07%), 마이크론(-2.25%) 등이 약세를 보임. 특히 SK하이닉스 ADR(-7.47%)은 공모가를 하회함.

ASML 추가 급락

중국 정부 지원을 받은 상하이 기업이 자체 개발한 액침형 DUV(심자외선) 노광장비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8.52%) 본주가 크게 내림. 미국·네덜란드의 EUV(극자외선) 수출 규제로 인해 DUV는 중국이 확보 가능한 최고 수준의 노광장비로 올해 약 5대, 2027년에는 연 20대 생산을 목표로 설정. 액침형 DUV는 다중 노광(Multi-patterning)을 활용하면 미세 공정 구현이 가능.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립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큼. 다만 현재는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양산에 적용 가능한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초기 장비는 연구개발 및 시험 생산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산 적용까지 추가 검증 필요.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금리 하락, 환율 보합**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65%로 하락했으며, 이는 중동 지역의 유가 하락과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 완화가 주요 요인임. 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는 101.51로 소폭 상승했으나, 유로/달러 환율은 1.14로 변화 없었고, 원/달러 환율은 0.50% 상승한 1,466.95로 마감함.

에너지 가격 급락

WTI 원유가격이 하루 동안 9.7% 하락한 81.68달러를 기록했으며, 브렌트유 역시 10.99% 내린 87.56달러로 마감함. 이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캐스피안 파이프라인 운송 재개 등의 영향임. 금은 0.74% 상승한 온스당 4,082.07달러, 은은 1.00% 오른 58.56달러를 기록했으며, 구리도 0.86% 상승한 6.36달러로 마감함. 반면, 천연가스는 4.93% 하락한 2.74달러를 기록했고, 밀도 3.06% 내린 658.19달러로 마감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